

# 男 베논 남고 러셀 떠나고 女 실바·모마 재계약 확실

## 프로배구 외인 거포 운명은



프로배구 2025-2026시즌 정규리그 종료 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올 시즌 V리그에서 뛰던 외국인 거포들의 재계약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남녀부 각 7개 구단은 올 시즌 외국인 선수들의 성적표를 보고 재계약 또는 새로운 선수 영입 중 하나를 선택한다.

외국인 선수 트리아아웃 및 드래프트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남녀부 동시 개최하는 가운데 18일 트리아아웃 신청을 마감한다.

OK저축은행만 정규리그를 마쳤고, 나머지 6개 구단은 한 경기씩을 남겨둔 남자부에서 재계약이 가장 유력한 선수는 올 시즌 사실상 득점왕을 예약한 세운 베논(등록명 베논)이다.

베논은 작년 5월 외국인 드래프트 때 '사실상 1순위' 낙점받은 특급 공격수다.

1순위 지명권을 얻은 KB손해보험이 안드레스 비에나(등록명 비에나)와 재계약하자 다음 순위였던 한국전력은 베논을 선택했던 것.

베논은 올 시즌 소속팀의 35경기에서 845점(경기당 평균 24.1점)을 사냥하며 2위 비에나(808점)를 제치고 득점왕을 예약했다. 베논은 한국전력(승점 56)의 3위 도약에 앞장선 가운데 18일 비에나를 앞세

## 현대캐피탈 '쿠바 특급' 레오

### V리그 아홉 시즌 째 잔류할 듯

올 시즌 4위 KB손해보험(승점 55)과 3위를 건 정규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한국전력은 베논을 '반드시 잡는다'는 목표로 좋은 분위기에서 재계약 논의를 진행 중이다. KB손해보험은 2024-2025시즌 득점왕에 이어 올 시즌도 득점 부문 2위에 오른 비에나에 팀 공헌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트리아아웃 현장에 가서 외국인 선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자부 새 시즌 외국인 선수 연봉은 재계약 시 55만 달러, 신규 선수는 40만 달러다. 남자부 나머지 구단의 선수들은 거취가 확실치 않거나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는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중 현대캐피탈은 여덟 시즌째 V리그에서 뛰던 '쿠바 특급'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와 재계약 가

능성을 열어왔다. 반면 대한항공은 시즌 막판 부진한 카일 러셀(등록명 러셀)을 올해 포스트시즌 직전이라도 교체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서 다음 시즌에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카드와 삼성화재는 '감독대행 체제'여서 하과엘 아라우조(등록명 아라우조), 미힐 아히(등록명 아히)와 재계약 여부를 새 사령탑 선임 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OK저축은행은 디미타르 디미트로프(등록명 디미트로프)가 시즌 막판 불성실한 태도까지 보여 재계약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여자부에선 남녀부를 통틀어 3년 연속 1000득점 돌파 대기록을 세운 GS칼텍스의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와 한국도로공사 정규리그 1위에 앞장선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등록명 모마)는 재계약에 무게가 실린다.

## 페퍼저축은행 특급 용병 조이

### 재계약이나 이적이나 저울질

GS칼텍스와 도로공사는 실바와 모마를 잡는다는 방침이고, 두 선수도 재계약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또 올 시즌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준 페퍼저축은행의 조이 웨더링턴(등록명 조이)의 재계약 여부는 여자부 최대 관심사다.

조이는 31경기에서 880점(경기당 평균 28.3점)을 수확하고 공격 종합 2위(성공률 47.3%)에 오르며 만년 최하위팀 페퍼저축은행의 꼴찌 탈출을 견인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 재계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조이는 재계약과 '보다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득점 부문 3위(898점)에 오르며 분전한 단차 빅토리아(등록명 빅토리아)도 재계약 기대가 큰 가운데 현대건설의 카리 가스버거(등록명 카리), 정관장의 엘리아 자네테(등록명 자네테)는 트리아아웃 신청자 상황과 맞물려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기대 이상의 활약에도 시즌 막판 파워와 체력 부족을 드러냈던 흥국생명 레베카 라센(등록명 레베카)은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으로부터 재계약 낙점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4-2025시즌 남자부 레오, 비에나, 러셀 3명, 여자부 실바, 빅토리아 2명이 원소속팀과 재계약에 성공한 가운데 누가 소속팀의 러브콜을 다시 받을지 주목된다.

클 사잔-연합뉴스



베네수엘라가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6 WBC 4강전에서 이탈리아를 4-2로 승리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베네수엘라 "미국 나와라"

### 이탈리아 꺾고 결승행

### 오늘 오전 챔프 결정전



베네수엘라가 이탈리아를 꺾고 사상 최초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에 올랐다.

베네수엘라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6 WBC 4강전에서 이탈리아를 4-2로 눌렀다.

이로써 17년 전 2009년 대회 준결승에서 한국에 2-10으로 패해 고배를 마셨던 베네수엘라는 사상 처음으로 WBC 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8강에서 막강 타선의 화력으로 우승 후보인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8-5로 제압한 베네수엘라는 여세를 몰아 조별리그에서 미국에 일격을 가한 대이변의 주인공 이탈리아마저 꺾었다.

베네수엘라는 18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을 2-1로 제압한 미국과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미국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래 두 나라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벌어지는 이번 결승전에서 양국 응원 열기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 전복 이후 베네수엘라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 장담했지만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악화한 실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600%까지 치솟았고, 1월 원유 생산량 역시 전월(작년 12월) 대비 21% 줄었다.

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얽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결승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4강전에서 먼저 점수를 뽑은 쪽은 이탈리아였다.

2회말 1사 1루에서 베네수엘라 선발 투수 케이데르 몬테로(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제구 난조로 세 타자 연속 볼넷을 허용하면서 밀어내기 1점을 주고 강판됐다.

한국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뛰던 리카르도 산체스(나베간테스 델 마가야네스)가 땅볼로 1점을 더 줘 이탈리아가 2-0으로 앞섰다.

베네수엘라는 4회초 에우헤니오 수아레스(시애틀 매리너스)의 좌중간 홈런으로 1점을 만회했다.

이어 1-2로 끌려가던 7회 2사 후 마친내 전세를 뒤집었다.

잭슨 슈리오(밀워키 브루어스)가 중전 안타를 쳐 1루에 있던 주자를 3루로 보냈다. 2사 1, 3루에 등장한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유격수 쪽 깊숙한 내야 안타로 2-2 동점을 냈다.

경기 원점에서 마이클 가르시아(캔자스시티)의 역전 좌전 적시타, 루이스 아라에스(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썩기 중전 적시타가 연속으로 터져 베네수엘라는 4-2로 점수를 벌였다. 이후 베네수엘라 3명의 볼넷 투수는 탈삼진 5개를 합작하며 3이닝을 파펙트로 틀어막아 팀을 결승으로 인도했다.

홈런을 칠 때마다 '에스프레소 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이번 대회 전승 행진에 이어오던 이탈리아는 사상 첫 4강 진출을 이뤄냈지만, 결승 문턱에서 물러났다.



카를로 안헬로티 감독이 3월 A매치 평가전에 나설 브라질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네이마르, 브라질 축구평가전 명단서 또 제외

'34세 축구스타' 네이마르(산투스)가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3월 평가전 명단에서 또다시 제외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모양새다.

카를로 안헬로티 브라질 대표팀 감독은 17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브라질축구협회 본부에서 3월 평가전에 나설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브라질 대표팀은 현지시간 26일 미국 보스턴에서 프랑스와 맞붙은 뒤 31일 올랜도에서 크로아티아와 대결한다.

안헬로티 감독이 발표한 3월 A매치 명단에서도 '브라질 축구스타' 네이마르의 이름은 빠져있다.

브라질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128경기 79골)에 빛나는 네이마르는 2023년 10월 우루과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경기에서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반월판이 파열된 이후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네이마르는 지난달 부상 복귀 이후 3경

기 만에 소속팀에서 득점을 뽑아내며 북중미 월드컵 출전의 희망을 키웠다.

하지만 최근 2주에 걸쳐 네이마르의 경기력을 점검한 안헬로티 감독은 '대표팀 합류 불가'를 선택했다.

안헬로티 감독은 "네이마르는 100% 상태가 아니어서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마르는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신체적으로 100%가 될 수 있다면 월드컵에 갈 수 있다. 계속 경기를 뛰면서 자기 기량을 증명하고 좋은 신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와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

